

3/12(토) 사사기 11-14장 위기의 때, 조급한 선택

입다는 위기의 때에 급하게 선택된 지도자입니다(11:5).

입다는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하러 다니던 사람입니다(11:3).

인신제사를 서원할 정도로 가나안 종교에 동화된 사람입니다(11:30-31).

장로들은 전쟁용 지도자로만 입다를 <고용>하려 했으나

입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상향조정해 협상합니다(11:6-10).

그들은 무운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<형식적 절차>를 거칩니다(11:11).

장로들이나 사사에게서 공동체를 위한 영적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

리더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고 있습니다.

입다는 나름 논리나 협상력에서 탁월해 보이지만,

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(11:9, 12-27).

목적한 바를 이끌어내려 암몬과는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만,

동족에게는 별다른 노력 없이 42,000명을 바로 살해합니다(12:1-6).

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군사적 구원도 이루지만

그는 정작 하나님에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.

하나님이 금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 듭니다(11:30-31).

이스라엘의 형편은 갈수록 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

<7>가지 우상은 최고조로 달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나타냅니다(10:6).

심판의 도구로 이방민족을 둘이나 보내신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가늠케 합니다(10:7)

암몬은 가나안의 중심을 차지한 <유다, 베냐민, 에브라임>을 공격합니다.

이스라엘은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.

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약관이 효력을 발휘합니다.

사사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본격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.

이스라엘에는 과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?

나와 공동체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?

❶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<적당한> 방편을 찾지 않습니까?

❷ 조급하고 인위적인 결정으로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?